

건축도시공간연구소

# AURI BRIEF

No. 16 2009. 11. 9

## 한국 건축에 대한 외국인 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

- 한국 건축에 대한 외국인 인식조사는 외국인의 도시와 건축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여 도시와 건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, 건축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조사결과, 대부분의 응답자가 국가이미지 형성에 도시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(83.7%), 도시이미지 형성에 건축물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(74.7%)
- 서울의 이미지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로 응답자의 27.3%가 '한국 전통적 건축물과 최신 건축물의 공존'을 꼽았음
- 다른 도시에 비해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'높다' (66.7%)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음
- 서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소로는 '인사동'이 24.3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인상 깊은 장소를 선택한 이유로 '특색있는 가로 분위기'라는 응답이 56.0%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로가 인상적인 도시이미지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음
- 따라서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와 건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, 도시이미지를 결정하는 전통적인 요소가 도시 환경에 반영되어 정체성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음
- 특히, 서울에 가장 부족한 점으로 지적된 '넓은 녹지와 공원', '보행자를 위한 도로', '잘 정비된 가로' 등 공공공간을 보완·정비하여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판단됨

## 1. 한국 건축에 대한 외국인 인식조사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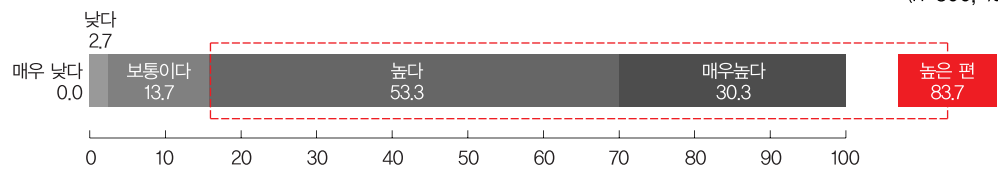
- 한국 건축에 대한 외국인 인식조사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시이미지, 도시 내 인상적인 장소, 한국 건축의 수준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여 건축정책의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.
- 특히, 외국인의 도시와 건축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도시와 건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,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장소와 건축물에 대한 사례를 함께 조사하였다.
- 본 조사는 2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서울지역에 체류한 영어권 및 일본어권 외국인 300명을 대상으로 2009년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3일 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조아래 진행되었다.

## 2. 국가이미지와 도시, 건축의 중요성

### ■ 국가이미지, 도시이미지에 도시, 건축물이 미치는 영향

- 국가 이미지 형성에 도시가 미치는 영향이 '높다'는 응답자는 83.7%(매우 높다+높다)로 나타났다. 이중 '매우높다'는 30.3%, '높다'는 53.3%였으며 기타 '보통이다' 13.7%, '낮다'는 의견이 2.7%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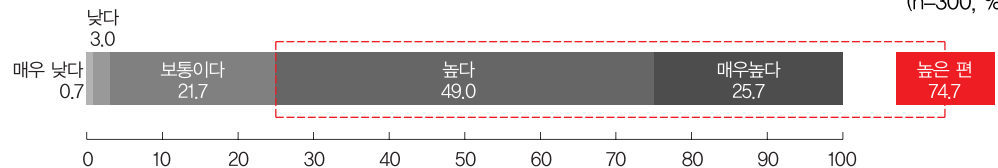
(n=300, %)



국가 이미지 형성에 도시가 미치는 영향

- 또한, 도시 이미지 형성에 건축물이 미치는 영향이 '높다'는 응답자는 74.7%(매우 높다+높다)로 나타났다. 이중 '매우높다'는 25.7%, '높다'는 49.0%였으며 기타 '보통이다'는 21.7%, '낮다'는 3.0%, '매우낮다'는 0.7%인 것으로 나타났다.

(n=300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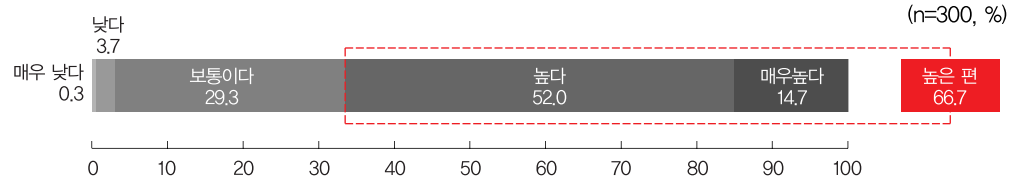


도시 이미지 형성에 건축물이 미치는 영향

- 종합하면 국가이미지와 도시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도시와 건축물이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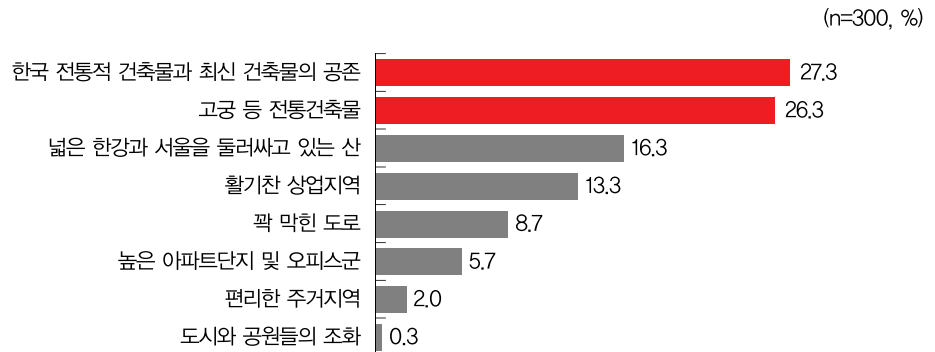
## 서울의 도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

-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'높다'는 응답자는 66.7%(매우 높다+높다)로 조사되었다. 이중 '매우높다'는 14.7%, '높다'는 52.0%였으며 기타 '보통이다'는 29.3%, '낮다'는 3.7%, '매우낮다'는 0.3%인 것으로 나타났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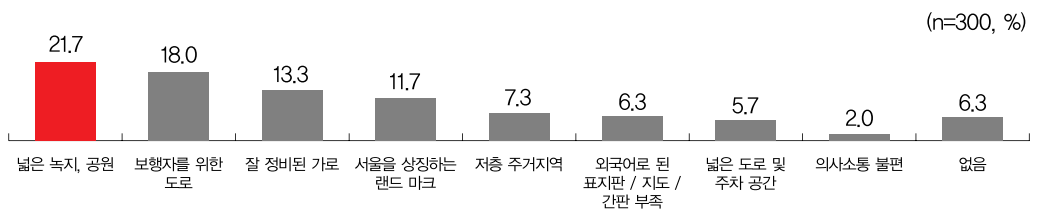
서울의 도시 경쟁력

- 서울의 이미지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는 '한국의 전통적 건축물과 최신 건축물의 공존'(27.3%)과 '고궁 등 전통건축물'(26.3%)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서울의 도시이미지 형성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요소가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.



서울의 이미지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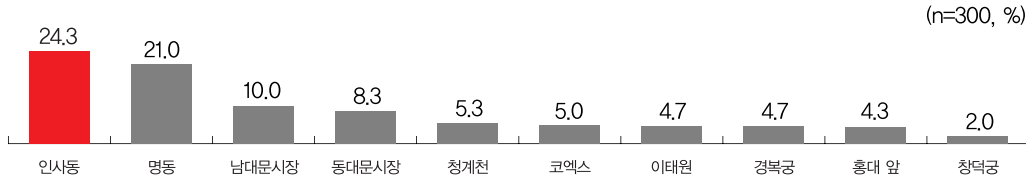
- 서울에 가장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'넓은 녹지, 공원'(21.7%), '보행자를 위한 도로'(18.0%), '잘 정비된 가로'(13.3%)로 선택됨에 따라, 도시 내부의 외부 공공공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

서울에 부족한 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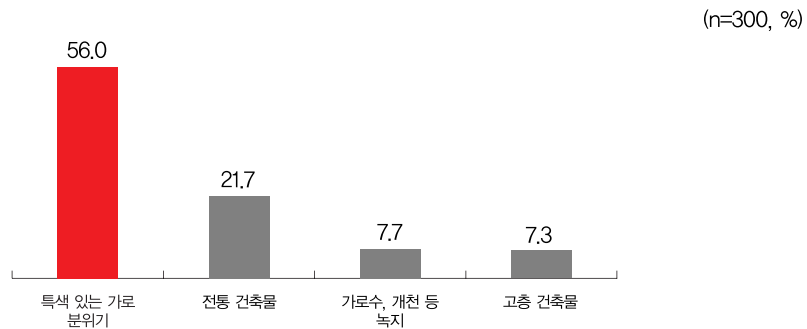
## 가장 인상에 남는 장소

- 방문한 장소 중 서울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장소로는 '인사동'이 24.3%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 그 밖에 '명동'이 21.0%, '남대문시장'이 10.0%, '동대문시장'이 8.3%, '청계천'이 5.3%로 나타났으며 '코엑스', '이태원', '경복궁', '홍대 앞', '창덕궁'은 5.0% 이하로 조사되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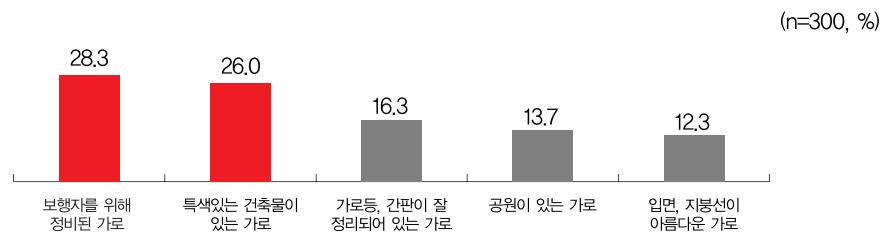
서울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장소

- 서울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소를 선택한 이유로 '특색 있는 가로 분위기'라는 응답이 56.0%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로가 인상적인 도시이미지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. 그 밖에 '전통 건축물'이 21.7%, '가로수, 개천 등 녹지'가 7.7%, '고층 건축물'이 7.3%로 조사되었다.



선택한 장소가 가장 인상에 남은 이유

-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이 선호하는 가로 형태로는 '보행자를 위해 정비된 가로'라는 의견이 28.3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그 다음은 '특색있는 건축물이 있는 가로'(26.0%), '가로등, 간판이 잘 정리되어 있는 가로'(16.3%)의 순으로 나타났다. 이는 보행자 위주의 가로 조성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판단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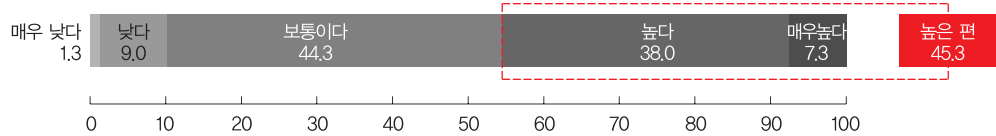
선호하는 가로 형태(2%이상 항목만 제시함)

### 3. 한국 건축물의 수준

#### 한국 건축물의 수준

- 다른 나라의 건축물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건축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자는 45.3%(매우 높다 + 높다)로 나타났다. 이중 ‘매우높다’는 7.3%, ‘높다’는 38.0%였으며 기타 ‘보통이다’는 44.3%, ‘낮다’는 9.0%, ‘매우낮다’는 1.3%인 것으로 나타났다.

(n=300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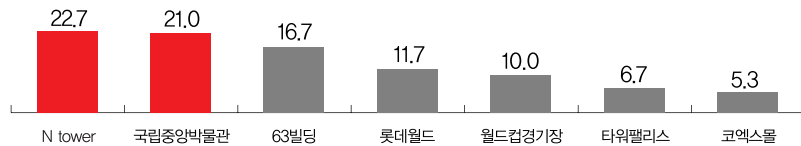


한국 건축물의 수준

#### 가장 기억에 남는 우리나라 건축물

-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건축물로는 ‘N tower’라는 응답이 22.7%로 가장 높았으며, 그다음으로 ‘국립중앙박물관’ (21.0%), ‘63빌딩’ (16.7%)의 순으로 나타났다. 그 밖에 ‘롯데월드’가 11.7%, ‘월드컵경기장’이 10.0%로 나타났고, ‘타워팰리스’, ‘코엑스몰’ 등은 10.0% 이하로 조사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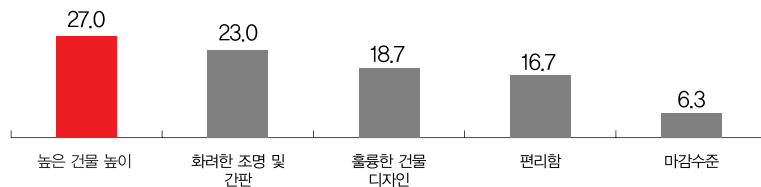
(n=300, %)



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건축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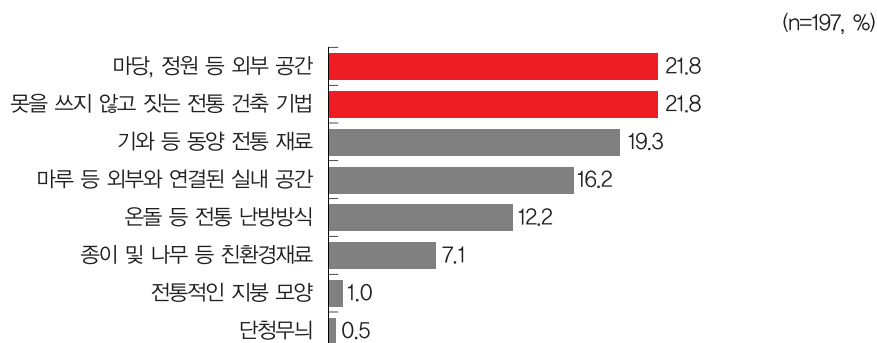
- 한국 건축물에 대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‘높은 건물 높이’가 27.0%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 그다음은 ‘화려한 조명 및 간판’ (23.0%), ‘훌륭한 건물 디자인’ (18.7%)의 순으로 조사되었다. 그 밖에 ‘편리함’이 16.7%, ‘마감수준’이 6.3%로 나타났다.

(n=300, %)



가장 기억에 남는 한국 건축물의 요소

- 궁궐 또는 한옥에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외국인(n=197)들은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 중 가장 인상적인 요소로 ‘마당, 정원 등 외부 공간’ (21.8%)과 ‘못을 쓰지 않고 짓는 전통 건축 기법’ (21.8%) ‘기와 등 동양 전통 재료’ (19.3%)을 선택하였다.



궁궐 또는 한옥 방문 경험자 중 인상적인 요소

#### 4. 한국 건축에 대한 외국인 인식조사의 시사점

-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국가이미지와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도시와 건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.
- 특히,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.
- 또한, 서울의 도시이미지 형성에 전통적인 요소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같은 인식은 서울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장소로 인사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.
- 따라서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와 건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도시이미지를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요소가 자연스럽게 도시 환경에 반영되어 정체성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.
- 특히, 서울에 가장 부족한 점으로 지적된 ‘넓은 녹지’, ‘공원’, ‘보행자를 위한 도로’, ‘잘 정비된 가로’ 등 공공공간을 보완·정비하여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.

이민우 |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정책연구실 연구원 (031-478-9621, ff@auri.re.kr)